opusdei.org

8월 4일 연중 제18주 일

"너희는 주의하여라. 모든 탐 욕을 경계하여라. 아무리 부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."

2019-8-2

루카의 복음. 12,13-21

그때에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, "스승님,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 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."

하고 말하였다.

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 다.

"사람아,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 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?"

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.

"너희는 주의하여라.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.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."

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 씀하셨다.

"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. 그래서 그는 속으로 '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?' 하고 생각하였다.

그러다가 말하였다. '이렇게 해야지.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 어,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. 그리고 나 자신에 게 말해야지. '자,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,

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."

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 다.

'어리석은 자야,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. 그러면 네가 마련 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?'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

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 바로 이러하다."

묵상

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착하며 더 많은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탐욕에서 멀어지라고 경고하십니다. 우리 모두 는 이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마지막 에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. 투탕카멘은 죽은 후 에도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시도했습 니다... 그리고 그의 무덤은 이미 도굴 되었습니다. 물질적인 것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 니다. 그들은 평화를 찾지 못하며, 불 행히도 그들은 하느님을 찾을 수 없 습니다. 자신의 곳간과 소와 양 (자신 의 재물)을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한 그 부유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는 우 리를 상기시켜줍니다.

그리스도인에게 청빈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의 덕입니다. 청빈은 우리가하느님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허락해줍니다.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독수리가 위풍당당하게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? 그것은 단지 독수리의 날개폭 때문에

그렇지는 않습니다. 주된 이유는 독수리의 몸이 가볍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 오르길 원하시며 물질주의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십니다.

호세마리아 성인은 다음과 같이 청빈 의 덕을 실행하곤 하였습니다.

첫 째, 그는 절대로 '자신의' 소유물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, 그는 절대로 자신이 사용한 책에 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. 그는 절대로 '내 방' 이라고 말하지 않았고, '내가 사용하는 그 방' 이라고 말했습니다.

둘 째, 그는 절대로 그가 필요하지 않 거나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, 그와 함 께 항상 동행하는 복자 알바로가 시 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의 시계를 치워 버렸습니다. 셋 째, 그는 절대 그에게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 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옆에서 40년 을 지내온 복자 알바로는 그가 불평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고 했습니다.

넷 째, 그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, 그는 항상 자신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.. 이 외에도 호세마리아 성인의 청빈을 위한 습관들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선 이 몇가지 팁들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...

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, 당신은 청빈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물질적인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...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:정대영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8weol-4il-yeonjung-je18juil/ (2025-12-16)